

## 『노자』, 그 ‘역설’의 문학을 논함\*

안희진\*\*

### 【목 차】

1. 서론
2. 노자 역설의 3단계
  - 1) 단계1: “大巧若拙”
    - (1) “진정한 A는 非A처럼 보인다.”
    - (2) “진정한 A는 a를 하지 않는다.”
  - 2) 단계2: “物壯則老”
    - (1) “억지로 A하면 A+를 할 수 없다.”
    - (2) “지나친 A는 非A가 된다.”
  - 3) 단계3: “無爲而無不爲”
    - (1) “非A이면 A가 된다.”
    - (2) “非A로 A를 하라.”
3. 결론

### 1. 서론

현재 통행되는 『노자』는 왕필본이 주류를 이룬다.<sup>1)</sup> 왕필은 이 책을 풀이하면서 그 궁극적인 내용의 초점은 ‘崇本息末’에 있다고 했다.<sup>2)</sup> 왕필은 또 “도로써 나라를 다스림에 본질을 중

\* 본 연구는 2014년도 단국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china@dankook.ac.kr)

1) 『노자』는 지난 1973년 중국 호남성 장사 마왕퇴 백서본이 출토 이후 20년 뒤인 1993년 다시 양자강 중류 광점에서 죽간에 쓰인 초나라 때의 『노자』가 발견되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노자』라고 할 수 있다. 그 광점 초간 『노자』는 전해지는 『노자』의 3분의 1 분량(불완전한 33장)에 불과하고 또 체제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왕필본 『노자』는 중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축적한 지혜의 결정체임을 부정할 수 없다. 광점본에 관한 한글로 된 상세한 소개 자료로는 양방웅의 『초간노자』(예경출판사, 2003)가 있다.

2) “老子之書，其幾乎可一言而蔽之。噫！崇本息末而已矣。”(王弼『老子指略』) 사실 왕필의 『노자』보다 더 이른 시기에 『노자』를 해설한 사람으로 한문제(BC202-BC157) 때의 ‘河上公’이 있지만, 주제에

시하고 지업을 배제하며,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림에 핵심을 잡고 말단을 배제하라는 것”<sup>3)</sup>이라고 했다. 왕필의 견해에 따르면 노자의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적인 것을 중시하고 지엽적인 것을 배제한 ‘다스림의 학설’이라는 말이다. 『노자』에 주어로 쓰인 단어 중 상당수가 ‘聖人’, ‘王’, ‘侯王’, ‘萬乘之君’ 등인 것으로 볼 때 노자가 자신의 말을 들려주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이들을 알 수 있다. 특히 30차례 이상 나오는 ‘聖人’이라는 단어는 “훌륭한 군왕”으로 해석해야 전체의 내용에 부합한다.<sup>4)</sup> (이런 이유로 본 논문에서 인용된 『노자』 문장은 노자가 왕에게 하는 말처럼 경어체로 번역했다.)

그런데 『노자』를 읽다보면 두 가지의 독특한 문학적 표현이 드러난다. 하나는 쉽 없이 펼쳐지는 풍부한 비유의 수사이며, 다른 하나는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역설의 수사이다. 『노자』의 비유적 수사법에 관해서는 필자가 논문을 통해서 그 문학적 역량을 설명한 바 있다.<sup>5)</sup> 역설의 수사법 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노자』의 전체적 의미를 드러낸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경우 孫中原<sup>6)</sup> 등이 발표한 논문과, 국내의 박영희<sup>7)</sup> 김원중, 철학계의 이운형<sup>8)</sup> 등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이 『노자』의 역설을 문학적 특징 또는 수사학적 의미로 기술하거나 철학적 의미를 찾는데 중점을 뒀다. 이는 노자가 왜 그런 표현을 해야 했는지까지는 설명하지만, 그런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밝히는 것에는 다소 미흡하게 보인다. 단지 일부의 학자들이 『노자』의 역설이 변증법적 논리라는 해석을 가해 그 의미를 찾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이론을 위한 논리에 그침으로써 노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관한 총괄적인 대답을 적시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다행스럽게도 위의 학자들 중 박영희는 『노자』 역설의 내적 의미에 한층 다가간 논문을 발표했다.<sup>9)</sup>

전종서는 『管錐編－老子王弼注』에서 이렇게 말한다.

‘正言若反’은 노자가 그의 사상을 펼친 하나의 방식이며, 『노자』의 모든 문장에서 드러나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는 ‘왕필’본을 위주로 논한다. 노자의 각장 이름은 설명의 편의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27장)’ 등의 형식으로 했다.

- 3) “以道治國，崇本以息末；以正治國，立辟以攻末。”(王弼『老子注』第五十七章)
- 4) 한비자 등 다른 문헌에서도 ‘성인’의 용법은 노자에서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런 관점으로 번역한 책은 오강남의 『도덕경』(현암사, 1995) 등이 있다.
- 5) 안희진, 「논리를 넘어서는 직관의 문학 기제 -『노자』의 ‘비유’를 논함」 『중국어문학』 2012.04
- 6) 孫中原 「正言若反-『老子』의辨證論理」, 『河北社會科學』, 2008.07 魏永貴 「『老子』書中“冤親詞”与“翻案語”論析」, 『語言文字學術研究』, 2008, 제1기 王靜 「『老子』悖論的順應論解釋」, 『求索』, 2011.08 張洪波 董譯聰 「老子正言若反與矛盾修辭格 (Oxymoron) 的同異」, 『人文叢刊第8輯』, 2013 劉雲漢 「正言若反-『老子』的悖異修辭」, 『河北學刊』, 2011.11 李培艷 「論『老子』正言若反的表達方法」, 『語言應用研究』, 2009.04
- 7) 박영희 「『老子』의 逆說에 대한 이야기식 해설의 함정:『韓非子』·『喻老』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2010 김원중 「『노자』 텍스트에 있어서의 부정과 역설의 미학: “道可道, 非常道”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총간』 32, 2013년
- 8) 이운형 「『노자』의 도와 역설 = Laozi's Tao and Paradox」, 『동양철학』, 2003 이경무 「『노자』철학에 있어서의 역설과 부정 = Paradox and Negation of LAO-TZU」, 『汎韓哲學』, 2010 오진탁 「『도덕경』에서 “정언약반”의 철학적 함의」, 『인문학연구』, 1996
- 9) 「『老子』의 逆說을 통한 素朴美 再考」 『中國語文學誌』 2009.10

역설과 모순의 수사법이다. 이는 신비주의 사상가들이 사용하는 말투다. 10)

전종서는 위처럼 말하면서 『노자』 문장의 특징을 두 가지 용어로 말했다. 그 하나는 ‘翻案語’이다. 즉 ‘Paradox역설’인데 중국어 단어에 없는 표현이었으므로 ‘뒤집힌 말’이라는 뜻으로 ‘翻案語’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冤親詞’다. 그는 ‘Oxymoron모순’이라는 단어를 ‘원한사랑’이라는 중국식의 모순적 조합어로 표현했다. 이처럼 거꾸로 된 말이나 뒤집힌 말, 심지어 이치에 맞지 않는 듯한 말이 『노자』에 많이 쓰인 것은 전종서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왔다. 『노자』에 역설이 많이 쓰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역설로 점철된 『노자』의 문장들을 분석하면, 그 문학적 역량을 넘어서서 노자가 5천여 글자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지 좀 더 본질적인 핵심을 확인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역설’이란 문장이 가리키는 논리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 내면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고도화된 수사 기교다. 기본이 되는 일반적인 전통논리의 경직성과 표피성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역설은 『노자』에서 대단히 빛을 발한다. 역설은 언어의 표면적 의미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내면적 의미로는 진실에 더욱 가깝다. 제자백가의 문헌 중 가장 다채롭게 펼쳐지는 『노자』의 역설은 노자가 주장하려는 사상을 한층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는 역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논문은 四部備要본 왕필의 『노자』를 기본 자료로 해서 역설로 묘사된 주요 문구를 유형별로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은 역설의 유형을 분류하지만 분류에 그치지 않고 『노자』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결론으로 귀착되는지 일단의 구도를 그려내려고 한다.

## 2. 『노자』 역설의 3단계

만약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표면적 의미로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이므로, ‘A는 非A다’라고 등식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라는 말도 똑같이 언어가 표하는 의미 구조에서는 합리적인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의 어떤 의미가 표면적 의미보다 더욱 이치에 맞는다면 그것이 역설이다.<sup>11)</sup> 『노자』의 역설 중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의 하나는 “大巧若拙”이다.

10) “夫正言若反乃老子立言之方, 『五千言』中觸處彌望, 即修詞所謂翻案語(paradox)与冤親詞(oxymoron), 固神秘家言之句勢語式耳.”(錢鍾書『管錘編』中華書局, 1981) 463쪽. 모순 수사법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형용 모순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수사의 특징은 주로 정반대되는 어휘로 조합된 경우다. ‘슬픈 희열’처럼 반어적 수사가 어휘에 국한 된 것이 특징이다.

11) 원래 일본어에서 차용된 ‘역설’이라는 어휘는 학계에서 3가지로 사용된다. 하나는 과학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풀릴 수 없는 명제’ 등을 ‘역설’이라고 지칭한다. ‘칸토어 역설 (Cantor’s Paradox)’ ‘제논의 역설(Zeno’s Paradox)’ ‘할아버지 역설(Grandfather Paradox)’ 등이 그것이다. 이는 사실 역설이라고 하기 보다는 ‘未濟’ 또는 ‘오류’나 ‘아포리아(Aporia)’라고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철학과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논리의 경우다. ‘거짓말쟁이의 역설(Liar Paradox)’, ‘러셀의 역설(Russell’s paradox)’ 등 논리적 모순이 드러난 경우를 말한다. 이는 사실 ‘謎題’라고 해야 적합할 것

번역하자면 “커다란 재능은 서툰 것처럼 보인다.”이다. 노자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문장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이 역설에는 심층의미가 있다. 예술에서 기교가 극치에 이르면 그 기교가 녹아들어 작품이 오히려 질박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런 역설이 『노자』에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쓰인 까닭은 무엇일까. 노자가 하고 싶은 이런 말에 어떤 공통된 핵심 내용이 있지 않을까? 노자는 『노자』의 총 81장중에서 20여장이 넘는 부분에서 역설적 표현을 했고, 역설로 수식된 문구만 70개 이상이다. 『노자』의 역설은 문학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 그리고 그런 역설을 통해서 노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과제다.(본 논문은 설명의 필요를 위해서 정면개념의 단어를 ‘A’, 반면 개념의 단어를 ‘非A’로 표기했다. ‘A’와 동일 범주의 개념은 ‘a’로 했다.)

## 1) 단계1 : “大巧若拙”

### (1) “진정한 A는 非A처럼 보인다.”

大方無隅。진정 커다란 사각형에는 모서리가 없습니다.  
 大器晚成。진정 커다란 그릇에는 완성됨이란 없습니다.  
 大音希聲。진정 커다란 음향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大象無形。진정 커다란 형상에는 모양이 없습니다. (41장)

우선 세 번째 ‘大音希聲’라는 문구를 다시 보자. ‘음향음’과 ‘소리聲’의 경우 전종서는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sup>12)</sup> 사실 소리가 있어야 음향이라는 게 존재하므로, 다른 3가지 문구와 같이 후자는 전자의 필요조건이다. 노자는 제2장에서 ‘음향음과 소리聲는 함께 조화를 이룬다. 音聲相和’고 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이 말로 어떻게 역설 ‘大音希聲’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글자는 ‘大’이다. 일반적인 음향음과 소리聲는 한 범주에 있으므로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지만, ‘大音’은 아니다. ‘大音’은 일반적 범주 밖에 있다. 그래서 ‘大音’에는 보통의 ‘聲’이 없다(希). 이런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자는 역시 같은 의미의 다른 비유를 들었다. ‘大象無形’에서 ‘象’과 ‘形’ 역시 동일 범주의 것이다. ‘象’은 동물(코끼리)이다. ‘形’은 정해진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에는 각각의 고정된 특징으로서의 모양이 있다. 즉 ‘凡象有形’이다. ‘凡象’은 사람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동물이다. 그러나 ‘大象’에는 고정된 형체가 없다. ‘大象’은 보통사람

이다. 다른 하나는 문학적 수사법으로서의 역설이다. 이것은 언어적 진술에서는 부조리인데 내적 의미로는 진실 또는 다른 내재적 의미인 경우다. 본 논문은 『노자』의 역설이 이런 문학적 수사법의 하나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했다. 중국어 矛盾修辭法 (Oxymoron) 은 어휘에 국한 된다. 『노자』의 역설은 문학적으로 확장된 모순 수사법(Expanded Oxymoron)으로 ‘Paradox’가 정확한 표현이다.

12)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 뜻이 거의 같다고 본다. 예를 들면 ‘音’과 ‘聲’, ‘象’과 ‘形’이다. (노자의) 역설에서는 이런 같은 말이 서로 다르게 나뉘어 있는데 제41장의 ‘大音希聲, 大象無形’이 그것이다. 有兩言于此, 世人皆以爲其意相合相同, 例如‘音’之于‘聲’或‘形’之于‘象’, 翻案語中則同者异而合者背矣, 故四十一章: ‘大音希聲, 大象無形’。(『管錐編』) 463-464쪽

들이 생각하는 범주를 넘어서 있다. 이런 논리로 보면 나머지 두 개의 문구도 같은 의미다. ‘네모方’에는 ‘모隅’가 있어야 한다. 사각형의 것에 모서리가 없으면 사각형이 아니다. ‘그릇器’에는 ‘이루어짐成’이 있어야 한다. 그릇이란 완성되어야 그릇이다. 완성되지 않으면 그릇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大器晚成’에서 ‘晚’의 경우는 그동안 ‘免’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학설이 제기돼 왔으므로,<sup>13)</sup> 위 4개의 문구는 자연히 ‘진정한 A에 a란 없다’는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읽힌다. 『노자』의 위 문장은 모두 ‘진정한 A에 a란 없다’는 형식의 역설이다.

이 41장의 첫 문장이 “훌륭한 선비는 이런 이치를 들으면 그대로 실천합니다. 보통의 선비는 반신반의하고, 수준 낮은 선비는 비웃습니다. 上士聞道，勤而行之；中士聞道，若存若亡；下士聞道，大笑之。”이다. 여기서 ‘中士’ ‘下士’란 모두 보통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상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이치를 들으면 흘려듣거나 비웃고 만다. ‘大音希聲’의 ‘大音’은 진정한 음악이고 본질적인 음악이다. 白居易가 「琵琶行」에서 “이 순간의 고요함은 연주소리보다 더 낮네. 此時無聲勝有聲”라고 했을 때의 그 ‘無聲’이다. 보통사람들은 그 연주 중간 ‘無聲’ 상태의 정적을 ‘소리가 없다’고만 생각하는데 반해서, 백거이는 ‘無聲’ 속에서 더 아름다운 선율을 듣는다. 이처럼 진정한 어떤 것은 일반 사람들의 고정된 관념을 넘어선다고 본 것이 노자 역설의 한 유형이다. 사람의 상식이란 고정된 인식의 틀이다. 인식의 틀을 넘어서 보라는 이런 역설의 비유를 연이어 하는 것은 노자가 군왕에게 말하려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다.

노자가 이처럼 4가지나 되는 역설의 비유로 연거푸 강조한 것은, 다스림의 도란 보통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 본질을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상식으로 보았을 때 ‘方’, ‘器’, ‘音’, ‘象’에는 ‘隅’, ‘成’, ‘聲’, ‘形’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大方’, ‘大器’, ‘大音’, ‘大象’에는 그런 조건이 필요 없다. 달리 표현하면 진정 훌륭한 다스림에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것을 넘어서 있고, 백성들에게 의식될만한 특별히 대단한 다스림이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진정 훌륭한 군왕은 백성들이 그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太上，不知有之(17장)”고 한 노자의 말을 상기한다면 위 문장의 의미와 상통함을 알 수 있다. 진정 자연스러운 것은 의식되지 않는다. “허리띠가 몸에 맞으면 허리띠를 맨 줄 모르고, 신발이 몸에 맞으면 신발을 신은 줄 모른다.”<sup>14)</sup>고 한 장자의 말과도 상통한다. 이런 의미를 다른 개념의 단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진정 커다란 사랑에는 애정이 의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애정은 사랑의 한 표현이다. ‘愛’란 초기 의미가 ‘아끼다’, ‘아까워하다’의 뜻이다.<sup>15)</sup> 노자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치들의 단어로 바꿔 쓰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大仁無愛. 커다란 어짐에 아낌이란 없습니다.  
大義無忠. 커다란 대의에 충직함이란 없습니다.  
大禮無儀. 커다란 예법에 형식이란 없습니다.  
大智無慧. 커다란 지혜로움에 잔꾀란 없습니다.

13) 董蓮池『『老子』“大器晚成”即“大器无成”說補証』『古籍整理研究學刊』2000年05期 孫啓民, 「“大器晚成”本爲“大器免成”』, 『語文知識』1998年07期

14) “忘足，履之适也；忘要，帶之适也。”(『莊子·達生』) 587쪽

15) 『辭海』商務印書館, 1997, 623쪽

‘진정한 A에 a란 없다’는 형식에 좀 더 확실한 의미를 묘사해 넣는다면 a는 ‘우리 또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노자』가 역설로 강조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 된다. 그것은 이상적인 다스림의 도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은 인식의 틀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인식의 틀에 묶이면 본질을 놓치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노자에 의하면 일반적인 인식의, 틀에 박힌 가치란 의미 없는 것이다. 『노자』에서 누누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표면상의 가치를 버리고 본질을 찾아가는 일이다. 보이는 것은 본질과 다르다는 것이 노자가 위의 역설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다. 사람들이 인지하는 ‘현상의 것’(‘隅’, ‘成’, ‘聲’, ‘形’)을 넘어서야 진정한 것인 ‘본질’(‘大方’, ‘大器’, ‘大音’, ‘大象’)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노자는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41장에서 다음처럼 여덟 가지의 역설을 말한다.

明道若昧。분명한 이치는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進道若退。진보적 이론은 낡은 것처럼 보입니다.  
夷道若纈。완벽한 원칙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上德若谷。최고의 인품은 텅 빈 것처럼 보입니다.  
大白若辱。진정한 청결은 더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廣德若不足。커다란 인품은 초라한 것처럼 보입니다.  
建德若偷。건실한 인품은 부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質真若渝。질박한 것은 변질된 것처럼 보입니다.(41장)

분명한 이치라면 누가 봐도 분명하게 맞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오히려 틀린 것처럼 보인다. 이런 문형의 특징은 ‘진정한 A는 非A처럼 보인다.’는 구도다. 위의 말 중에서 주목할 것은 “~처럼 보인다.”는 ‘若’이다. 이 중에서 “분명한 이치는 틀린 것처럼 보인다. 明道若昧”는 말을 보자. 분명한 이치인데도 그것이 틀린 것처럼 보인다는데, 그렇다면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게 모두 분명한 이치일까?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본 ‘大’처럼) ‘분명한’이라는 부분이다. 만약 이런 수식어가 없다면 노자가 말하려는 뜻이 뒤바뀐다. ‘분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틀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역시 노자가 군왕에게 권면하는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굳센 것을 이긴다. 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43장)는 말은 이미 노자가 여러 곳에서 강조한 것이다.<sup>16)</sup> 최고의 것‘至’은 최고의 것‘至’을 극복한다. 군왕이라면 부드러움과 낮음으로 나라의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역설의 논리다.

大成若缺, 其用不弊. 진정한 성공은 부실한 듯 보이지만 시행함에 실패가 없습니다.  
大盈若沖, 其用不窮. 진정 가득함은 텅 빈 듯 보이지만 사용함에 끝이 없습니다.(45장)

16) “弱之勝強”(78장), “守柔曰強”(52장) 등 ‘弱’과 ‘柔’를 강조한 장은 10여 곳에 이른다.

이 역설의 문구는 ‘진정한 A는 非A처럼 보이지만, 그 쓰임은 무궁하다’는 구조다. 진정한 성공이지만 특이해 보이는 게 없으므로 눈에 뜨일 것이 없다. 그래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부실해 보인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若’을 써서 ‘~처럼 보인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大’이다. 보통의 성공이나 보통의 가득참이 아니라 ‘대단하고’ ‘진정한’ 것이다. 대단하고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부족하고 어딘가 빈 듯이 보이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앞의 예문과 같다. 이 8가지 역설에서 모두 지시하는 개념의 글자 앞에 수식된 글자가 있다. 바로 ‘明’·‘進’·‘夷’·‘上’·‘大’·‘廣’·‘建’·‘質’이다. 모두 ‘진정한’, ‘대단한’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런 역설은 다음의 문장에도 나타난다.

大直若屈. 진정으로 곧은 것은 마치 굽은 것 같습니다.  
大巧若拙. 진정한 재능은 마치 서툰 듯합니다.  
大辯若訥. 진정한 달변은 마치 어눌한 것 같습니다. (45장)

전중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혀 다른 뜻인 ‘直’과 ‘屈’, ‘巧’과 ‘拙’, ‘辯’과 ‘訥’ 등 서로 상대적인 개념의 글자가 『노자』에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묘사됐다.<sup>17)</sup> 그러나 그런 조화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大’라는 글자 때문이다. 진정한 커다란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보인다. ‘大方無隅’를 ‘大巧若拙’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진정 커다란 사각형은 마치 동그라미 같다. 大方若圓’이 된다. ‘大巧若拙’을 ‘大方無隅’의 형식으로 바꿔 쓰면 ‘진정 대단한 재능에는 기교가 없다. 大巧無技’가 된다. 이처럼 ‘진정한 A는 非A처럼 보인다.’는 구조의 역설은, 『노자』가 일관되게 ‘진정한’, ‘커다란’, 그리고 본질적인 그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어떤 것이란 ‘표면적인’, ‘의식적인’, ‘자질구레한’ 고정관념의 것들을 넘어서서, 군왕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필요한 ‘진정한’, ‘대단한’, ‘최상의’, ‘참된’ 다스림의 도리, ‘참된’ 군왕의 덕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들이다.

## (2) “진정한 A는 a를 하지 않는다.”

‘진정한’, ‘커다란’, 그리고 본질적인 그 어떤 것에 대한 『노자』의 추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군왕에게 대한 다음과 같은 요구로 연결되고 있다.

知者不言. 깊이 아는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言者不知. 말하는 자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56장)

‘진정한 A는 a를 하지 않는다.’는 구조의 이 문장 역시 전형적인 역설이다. (상리로 보았을 때) 알면知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고대 중국어에서 ‘言’에는 ‘책망하다’라는 뜻도

17) “또 두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그 뜻이 전혀 다르다고 본다. 예를 들면 ‘成’과 ‘缺’, ‘直’과 ‘屈’이다. (노자의) 역설에서는 이런 다른 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제45장의 ‘大成若缺, 大直若屈’이 그것이다. 又有兩言于此, 世人皆以爲其意相違相反, 例如‘成’之与‘缺’或‘直’与‘屈’; 翻案語中則違者諧而反者合矣, 故四十五章: ‘大成若缺, 大直若屈’。” (『管錐編』) 463~464쪽

있음을 참고하면 이해가 더 쉽다.) 그러나 지식이 대단히 풍부한 사람은 말을 삼간다. 노자는 2장과 43장에서도 ‘不言之教’를 말했다. 그것은 각각 ‘無爲之事’나 ‘無爲之益’과 병치되어 있다. 모두 ‘無爲’와 같은 개념이다. ‘말하는 것’을 부정한 노자의 위 문장을 확대해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다스림의 도에 대해서) 깊이 아는 군왕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하는 군왕은 (다스림의 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합니다.

위의 문장의 경우 ‘知者’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깊이 알고, 진정으로 알고, 널리 알고 잘 아는 사람이어야 본의가 드러난다. 우리가 앞에서 검토한 것을 근거로 하면 여기서의 ‘知者’에는 ‘진정’ ‘참으로’ ‘분명히’ ‘깊이’ 등의 뜻인 ‘眞’ ‘善’ ‘明’ ‘深’ 등의 수식어가 생략되어 있다. ‘言者’에는 매끄러운 말, 교묘한 말, 앞선 말, 많은 말에 해당하는 ‘美’ ‘巧’ ‘先’ ‘多’ 등의 수식어가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앞서 검토한 “진정 말을 잘하는 것은 마치 어눌한 것 같다. 大辯若訥”는 말과 같은 논리다. 이렇게 보면 위와 같은 노자의 역설은 표현만 다를 뿐 부단한 일관성을 보인다.

이런 내용은 사실 군왕에 대한 강력한 요구사항에 다름없다. 위 문장 뒤에 이어지는 노자의 말인 “낮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함께 섞이셔야 합니다. 和其光, 同其塵”라는 말을 더 들어보면 더욱 분명하다.<sup>18)</sup> 이 구절은 뒤에 나오는 81장의 역설과 완전히 같은 구조와 같은 의미의 문장이다.

信言不美, 美言不信. 믿음직한 말은 매끄럽지 않고, 매끄러운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善者不辯, 辯者不善. 착한 사람은 잘 따지지 않고, 잘 따지는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知者不博, 博者不知. 잘 아는 사람은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사람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81장)

이런 표현이 역설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상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거스르고, 거스르면서도 옳기 때문이다. 믿음직한 말信言은 아름답게美 들리는 게 상리일 것이다. 착한 사람善者은 말도 잘하고辯, 잘 아는 사람知者은 박식한博 것도 상리로 보인다. 노자는 자연스리울 듯한 이 모두를 부정했다. 다음의 경우는 전쟁의 비유를 들어서 군왕에게 나아감 보다는 물러섬을 요구한다.

善爲士者, 不武. 훌륭한 병사는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善戰者, 不怒. 싸움을 잘하는 자는 성내지 않습니다.

18) “감각의 구멍을 막고 생각의 문을 닫으십시오. 날카로움은 무디게 하고 맺힌 것을 풀어 버리셔야 합니다. 낮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함께 섞이셔야 합니다. 이것을 현묘함과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익 되게 하지도 말고 해가 되지도 말게 해야 합니다. 존귀하게 여기지도 말고 비천하게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塞其兌, 閉其門, 挫其銳, 解其紛, 和其光, 同其塵, 是謂玄同. 故不可得而親, 不可得而疏; 不可得而利, 不可得而害, 不可得而貴, 不可得而賤. 故爲天下貴.”(56장)



善勝敵者, 不與.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적과 다투지 않습니다.

善用人者, 爲之下. 사람을 가장 잘 쓰는 지도자는 자신을 낮춥니다. (68장)

상식적으로는 병사들이 무기를 사용해야 전투에서 이긴다. 노자는 무기 없이도 이겨야 훌륭한 병사라는 말이다.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은 손자도 강조한 이론이다.<sup>19)</sup> 사실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은 전쟁이 아니라 다스림의 도이다. 자신을 낮춤으로써 신하들을 굴복시키고, 백성들을 복종하게 하며, 상대국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것이 노자가 요구하는 군왕의 모습이다. 그런 관점이 다음처럼 역설의 정화가 되었다.

上德不德. 최고의 덕은 부덕한 것입니다.

是以有德. 이런 까닭에 진정한 덕이 있게 됩니다. (38장)<sup>20)</sup>

진정한 덕성을 가진 군왕은 덕이 없는 듯이 보인다. 진정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는 듯 없는 듯 보인다. 자녀에게 잘하려는 게 눈에 보이고 마음에 걸린다면 좋은 부모이긴 하지만 최상의 부모는 아니다. 노자가 추구한 것도 맑은 물이나 공기처럼 존재하는 군왕이 최고의 군왕이다. 이 문구에서 부덕은 단순한 부덕이 아니라 표피적인, 의식적인, 눈에 띄는 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노자가 말한 ‘大方無隅’ 등과 ‘知者不言’ 등 두 종류의 역설의 구조를 보면 모두 ‘A’일 것 같지만 사실은 非A라는 형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자』가 바라본 것이 내면의 것이며 본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내면을 보는 일에 소홀하기 쉽다. 외면만 본다는 것은 결국은 껍데기의 편중됨에 빠진다는 것이다. 본질을 잃은 편중됨은 나라에 혼란을 야기하고 군왕에게는 지위를 잃게 한다. ‘인의’라는 것 역시 인식된 틀의 것이라면 편중된 가치에 불과하다. 맹자가 양혜왕을 칭찬한 ‘어쥔’이란 기껏해야 ‘혼중’에 쓰이기 위해 죽으러 가는 소를 측은함으로 동정하는 수준의 것이었다. 맹자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런 측은한 마음으로 백성을 대한다면 천하에 왕 노릇 못할 리가 없다.<sup>21)</sup> 이 때문에 양혜왕은 백성들에게 소가 가까워서 양으로 바꿨다는 오해를 듣는다. 양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측은한 동물인 것은 같았던 것이다. 노자가 보기에는 그런 측은지심이란 편중된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측은은 백성이나 동물의 불쌍함에 공감하는 것이지만, 진정 커다란 측은은 평범한 측은지심을 거두고 오히려 담담한 모습을 보인다. 담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측은이며 최상의 측은이다. 노자가 말한 ‘天地不仁’이 바로 그것이다. ‘어쥔’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

19) “백전백승이 최선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최고의 전략은 전략이고, 그 다음은 군대를 격파하는 것이며, 그 아래는 성곽을 격파하는 것이다.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孫子兵法·謀攻』) 37쪽

20) “다른 두 종류의 글자는 그 의미가 하나는 정면이고 하나는 반면이다. 사람들은 모두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울릴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면 ‘上’과 ‘下’이다. (노자의) 모순으로 말하기에서는 이같은 말을 조화로운 하나로 보았는데 제38장의 ‘上德不德’이 그것이다. 이는 바로 소철이 말한대로 ‘이치에 맞는 것이 오히려 통속적이다’라는 것이다. 夏有兩言于此, 一正一負, 世人皆以爲相仇相克, 例如‘上’与‘下’, 冤親詞乃和解而无間焉, 故三十八章云: ‘上德不德’, 此皆蘇轍所謂‘合道而反俗也’.” (『管錐編』) 463-464쪽 전중서는 ‘上德’과 ‘不德’을 ‘上’과 ‘下’로 설명했다.

21) “王坐于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 ‘將以繫鐘.’” (『孟子·梁惠王上』) 39쪽

식된, 그래서 표피적이고 틀에 박힌 ‘어짚’을 부정한다. 노자는 ‘커다란 어짚’ 또는 ‘진정한 어짚’을 군왕에게 요구했다.

노자가 역설을 이용해서 군왕에게 내면의 본질을 강조한 것은 온전한 다스림을 위해서였다. 다음의 역설이 그것을 증명한다.

天網恢恢。하늘의 그물망은 넓고 성깁니다.

疏而不失。넓고 성긴 듯하지만 결코 아무것도 놓치지 않습니다.(73장)

넓고 성긴 그물은 상리로 보면 물고기를 다 놓치고 만다. 그러나 이 그물망은 보통의 그물망이 아니라 ‘하늘의 그물망’이다. 보통의 성긴 그물이라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 그러나 하늘의 (위에서 말한 ‘진정한다’) 그물망은 성길수록 놓치는 게 없다. ‘넓음恢恢’이란 군왕이 하는 무위의 다스림이다. 보통의 군왕은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그물을 촘촘히 짜는 일이다. 그러나 훌륭한 군왕은 의도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지만 다스림은 순조롭고 백성들은 저절로 잘 산다. 이로 볼 때 군왕에게 본질을 보라고 하는 『노자』의 역설에서, 문장은 정면과 반면의 것이 병치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표면과 내면이 병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자는 줄곧 내면의 것을 가리킨다.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대교약줄”의 진정한 의미다.

## 2) 단계2 : “物壯則老”

### (1) “억지로 A하면 A+를 할 수 없다”

위에서 우리는 노자가 역설을 통해서 군왕에게 하는 기본적인 요구가 ‘진정한’, ‘커다란’ 본질적인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노자가 이런 말은 한 것은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良藥苦口而利于病, 忠言逆耳而利于行。”(『孔子家語·六本』)<sup>22)</sup>는 말과 다름없이, 본질의 모습이란 사람의 인식과정에서 한 차례 걸러지고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왕이 다스림을 펼칠 때 주의해야할 또 하나의 것이 있다. 그것은 위와 같은 인식의 오류에 의해 편중된 것에 치우치거나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일을 하면 결국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다음의 문구를 보면 (인위적으로) A를 하면 (그것으로 기대되는) A+를 할 수 없다’는 논리적 역설이 드러난다.

企者不立。발꿈치를 들고 있으면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跨者不行。발걸음을 크게 하면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24장)

발꿈치를 들으면 (상리로 보았을 때) 제대로 서 있을 것 같지만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오

22) 『孔子家語』 中華書局, 2013년 183쪽

래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발걸음을 크게 하면 (상리로 보았을 때) 멀리 걸을 것 같지만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오래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상식적으로 보아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라면 소기의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텐데 실제에서는 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논점은 의도적인 노력, 즉 군왕의 ‘有爲’라는 것이 정치 현실에서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생각이나 말은 가능할듯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를 이처럼 비유했다. 다음 문장 역시 (사심에 의해) 의도적인 언행이 결국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自見者不明。자기를 드러내는 자는 빛날 수 없습니다.  
 自是者不彰。자기만 옳다는 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自伐者無功。공적을 자랑하는 사람은 공로가 무너집니다.  
 自矜者不長。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24장)

위의 예문들은 모두 ‘A者不A’의 구도를 갖고 있다. 위에서 말한 ‘스스로自’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의도적인’, ‘의식적인’이라는 뜻이다. 이 모두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사심’이다. 여기서 노자는 훌륭한 군왕이 정치를 하면서 백성을 위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모든 것은 ‘생각’이라는 작위적인 것에서 나와 표면적인 성과에 그치고 마는 경우를 말했다. 위나라의 양혜왕에게 맹자가 지적한 것처럼 백성을 위하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이었을 뿐이다.<sup>23)</sup> 왕은 백성을 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작위적인 것은 결국 백성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멀리 떠나고 만다. 인위적이라는 것은 편중되고 치우쳤다는 말이며, 그것은 결국 기대하는 것과 반대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 역설이다.

## (2) “지나친 A는 非A가 된다.”

위에서 점검한 것은 군왕의 인위적이고 의도된 생각이나 지나친 욕심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노자의 관점이다. 더 나아가서 노자는 다음과 같이 ‘지나친 A는 非A가 된다.’고 말한다. 의도된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기 까지 하면 반드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역설이다.

甚愛必大費。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큰 낭비가 됩니다.  
 多藏必厚亡。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합니다.(44장)

兵強則滅。군대가 강성하면 멸망합니다.  
 木強則折。나무가 딱딱하면 부러집니다.(76장)

23) 『孟子·梁惠王章句』에서 양혜왕은 자신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하지만 이웃나라는 인구가 늘어난데 반해 자기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자 맹자는 ‘五十步百步’의 비유를 들어서 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앞의 책 23쪽

‘지나친 A는 (그것이 지나친 것이므로) 非A가 된다.’ A를 통해 기대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인 非A를 초래한다. ‘必’과 ‘則’이라는 글자에는 필연성과 인과성이 함축되어 있다. 노자는 여기서 강성함을 부정한다. 부드러움을 주장하는 노자로서는 군왕의 지나친 강성함이 패망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이런 노자의 관점은 일관된 것이다. 다음의 한 구절이 그런 사상을 잘 뒷받침한다.

物壯則老。사물이 강성하면 곧 쇠퇴합니다.(30장)(55장)

위의 문구는 『노자』에 2차례 나타난다. 노자의 관점은 모든 것이 교체되며 순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흥성과 멸망이 동시에 존재하며 부단히 교체되는 하나라고 보았다.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sup>24)</sup>는 생각은 고대 중국 사상의 기본 관점이다. 이런 관점으로 노자는 다음과 같은 역설을 펼친다.

禍兮福之所倚。재앙은 행운과 이어져 있습니다.

福兮禍之所伏。행운에는 재앙이 감춰져 있습니다. (58장)

사물이 어떤 상태의 극단에 이르면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중국 고대인들의 이런 세계관은 뿌리 깊다.<sup>25)</sup> 반면적인 성격인 음의 기운과 정면적인 성격인 양의 기운은 끊임 없이 교차 순환한다고 본 것이다. 위의 문구는 노자가 아래와 같은 논변을 펼친 확실한 근거가 되는 관점이다.

將欲歛之，必固張之。장차 움츠러들게 하려면 반드시 펼쳐지게 해야 합니다.

將欲弱之，必固強之。장차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강하게 해야 합니다.

將欲廢之，必固興之。장차 망하게 하려면 먼저 흥하게 해야 합니다.

將欲奪之，必固與之。장차 빼앗고자 한다면 주어야 합니다.(36장)

非A를 위해서는 먼저 A가 되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리에 위배되는 역설이다. 상대방을 망하게 하려면 먼저 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논리다. 그러나 “사물이 강성하면 곧 쇠퇴한다.”는 노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말의 내면적 의미는 타당하다.<sup>26)</sup> 위의 문장 때문에 『노자』는 한 때 병가 학설이라는 논란도 있었지만<sup>27)</sup>, 이 역시

24) “窮則變，變則通，通則久。”(『周易·系辭下』) 344쪽

25) “全則必缺，極則必反，盈則必虧。”(『呂氏春秋·博志』) 713쪽

26) 다만 “必死則生，幸生則死”(『吳子·治兵』)처럼 중국 고대 언어가 극도로 함축적이고 절제되어 표현되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개념의 글자만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모순된 언표를 유발한다. ‘必死’의 결심으로 전투에 임하면 승리할 수 있고, 혹시 살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꾀를 피우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단지 ‘必死則生，幸生則死’의 8글자만으로 함축된 의미는 곧바로 역설이 되었다. 이처럼 고대 중국어에서의 함축과 생략이 역설의 효과를 확대시킨다.

27) 葛榮晉『老子与兵家』『中華文化論壇』2002年01期，劉繼興『毛澤東：『老子』是一部兵書』『國學』2014年01期，秀麗『『老子』戰爭思想剖析－兼駁『老子』兵書論』『安徽大學學報』2002年05期

노자가 고대부터 이어오는 기본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논리를 펼친 것일 뿐이다. 이런 말을 강조한 것은 노자가 왕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인 좋은 다스림을 위한 것이다. 위 문장에서 ‘之’란 『노자』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그것이 군왕이 대적해야 하는 상대국, 또는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써 신하나 백성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之’는 군왕이 다스림을 위해 ‘움츠러들게歛’ 하고, ‘약하게弱’ 하고, ‘망하게廢’ 하고, ‘빼앗고자奪’ 하는 어떤 것이다. 노자는 군왕이 추구하려는 목적인 非A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정반대의 상황인 A가 되게 해야 한다고 역설의 논리를 펼친 것이다.<sup>28)</sup>

### 3) 단계3 : “無爲而無不爲”

#### (1) “非A이면 A가 된다.”

우리는 앞의 단락에서 노자의 역설 논리가 두 가지로 제시된 것을 확인했다. 하나는 좋은 일이라도 역지로 하면 정반대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좋은 일도 극단에 이르면 그 반대의 나쁜 상황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자』가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曲則全. 굽으면 온전하게 됩니다.  
 枉則正. 휘면 바르게 됩니다.  
 洼則盈. 패이면 가득 차게 됩니다.  
 敝則新. 낡으면 새롭게 됩니다.  
 少則得. 적으면 얻게 됩니다.  
 多則惑. 많으면 잃게 됩니다.(22장)

노자는 A와 非A라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을 병치시켰지만 원인이 되는 非A는, 전혀 반대되는 A라는 결과를 도출한다. 문장의 외면적인 의미만으로는 그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

28) 이에 관해서는 전종서의 말을 참고할만하다. “마치 골수를 들추고 그 골육의 속결을 보는 것처럼 부정의 부정을 한 것이다. 정면을 뒤집어 반면이 되고 그 반면을 뒤집어 정면이 된 듯, 정언약반正言若反의 정정은 뒤집고 뒤집어서 된 진정한 정면이다. 65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물의 표면상의 이치와 반대가 되어 커다란 순리에 이른다.’는 것이다. 7장에는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으므로 오래 살 수 있다. …… 사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사심을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自生’이란 정면이고 ‘不自生’은 반면이다. 그러므로 오래 살 수 있다고 한 것은 반면의 반면에 이르러서 진정한 정면이 된 것이다. 사심이란 정면이고 사심 없음이란 반면이다. 그러므로 사심을 이뤘다는 것은 반면의 반면으로 해서 진정한 정면에 이르는 것이다. 노자가 말한 ‘曲全枉直, 善行无轍, 禍兮福倚, 欲歛固張’은 모두 반면의 것을 통해서 완전한 순리에 이른다는 冤親翻案之詞 이룬다. 若扶髓而究其理, 則否定之否定爾. 反正爲反, 反反爲正; ‘正言若反’之‘正’, 乃反反以成正之‘正’, 卽六五章之‘与物反矣, 然后乃至大順’. 如七章云: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非以其无私耶? 故能成其私, 夫‘自生’、正也, ‘不自生’、反也. ‘故長生’、反之反而得正也; ‘私’、正也, ‘无私’、反也, 故成其私反之反而得正也. 他若曲全枉直, 善行无轍, 禍兮福倚, 欲歛固張等等, 莫非反乃至順之理, 發爲冤親翻案之詞.” (『管錐編』) 464쪽

다. 이 경우, 문자에 나타난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앞의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면 뒤의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첫 구절을 ‘굽으면 온전할 수 있다’고 번역했는데, ‘則’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위의 경우처럼 쓰인 고대 중국어에서는 ‘就, 便’ 같은 인과 관계를 나타낸다.<sup>29)</sup> 굽으므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때, 문장의 전체내용으로 보아서 ‘굽음曲’은 부정적인 것이고, ‘온전함全’은 긍정적인 것이다. 노자는 부정적인 개념의 자세를 취함으로써 긍정적인 어떤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외에 翫枉, 胥毘注, 狃侮, 狃侮, 狃侮, 狃侮, (이 문장에서 ‘多則惑’은 동일 의미 유형의 문구가 아니다)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바름正, 가득함盈, 새로움新, 얻음得 이라는 긍정의 결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非A가 되어야 A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으로, 非A를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역대의 일부 학자들이 이런 노자의 말을 들어서 그 사상이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는 지극히 적극적인 선택이며 능동적인 자세다. 이것이 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지는 다음과 같다.

‘굽으면 온전할 수 있다’는 말은 장자에 좋은 비유가 나온다. 쓸모 있는 나무는 다 크기도 전에 목수에게 베여서 사라진다. 그러나 구부러져서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는 목수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므로 베임을 당하지 않는다.<sup>30)</sup> 이런 이야기는 장자가 ‘작은 쓰임’ 보다는 ‘큰 쓰임’을 말하기 위해서 예를 든 우연이다. 아무쪼록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나무를 추구한 건 아니다. 노자의 경우도 부정적인 개념인 非A가 목적이 아니다. 구부러지고 부족하며, 텅 비거나 낡고 적은 상태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非A이면 A이다’, ‘非A가 되면 A가 된다.’는 역설은 “바람이 불면 비가 온다.”는 순차 관계가 아니다. 노자의 관점으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상대적인 것은 순환하고 있으며 모두 동일한 범주에 존재한다. 그의 이런 관점은 제2장 “있음과 없음이란 함께 있다.有無相生”라는 구절에 잘 나타난다.<sup>31)</sup> 이처럼 非A는 A와 동일 선상에서 교체 순환하므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 것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非A가 되면 A가 된다는 위의 노자의 역설을 보면 非A와 A는 사실 음양의 속성처럼 표상으로 나타난 것은 둘이지만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본질은 하나라고 본 것이다. 이런 이해만으로 우리는 노자가 왜 그토록 물러섬, 차지하지 않음, 겸허함, 텅 빔을 강조했는지 알 수 있다. 사물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극단에 이르면 반드시 다른 한 쪽으로 전환된다. 군왕은 국가의 주인이고, 소유자이며, 나선 사람이고,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안 된다고 보았으므로 노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강조한 것이다.

絶聖棄智, 民利百倍; 絶仁棄義, 民復孝慈; 絶巧棄利, 盜賊無有。(19장)  
현명함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이 백배나 될 것입니다.  
어췌를 끊고 의로움을 버리면 백성들은 효심과 자애를 회복할 것입니다.

29) 『漢語大字典』湖北辭書出版社, 1981년, 340쪽

30) “匠石之齊, 至於曲轅, 見櫟社樹。……”(『莊子·人間世』) 156~158쪽

31) 있음과 없음이란 함께 있습니다 어려움과 쉬움이란 함께 생깁니다. 긴 것과 짧은 것이란 함께 존재합니다. 높음과 낮음이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음악과 소리란 함께 어울립니다. 앞의 것과 뒤의 것이란 함께 따라갑니다.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形, 長短相形, 高下相傾, 音聲相和, 前後相隨。(2장)

제주부리기를 끊고 이익 찾기를 버리면 크고 작은 도둑이 없어질 것입니다.

본장은 괄점 초간본에서 첫 번째 장으로 나오는 구절이다.<sup>32)</sup> 이 부분에서의 관점은 ‘현명 함聖’, ‘지혜로움智’ 등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가치와 개념들이 버려져야만 백성들에게 진정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어짊仁’나 ‘의로움義’ 등은 유가에서 강조하는 가장 가치 있는 개념이다. 그것을 없애야 백성들에게 진정한 효성스러움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 보면 모순이다. 이런 역설은 언어가 갖는 의미론적인 한계에서 기인한다.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는 중국 고대인들이 일찍이 ‘言不盡意’론을 강조했다<sup>33)</sup>. 여기서도 실제로 노자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의도된) 현명함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리면 백성들의 이익이 백배나 될 것입니다.

(의도된) 어짊을 끊고 의로움을 버리면 백성들은 효심과 자애를 회복할 것입니다.

(의도된) 제주부리기를 끊고 이익 찾기를 버리면 크고 작은 도둑이 없어질 것입니다.

노자의 말을 이렇게 부연해 놓으면, 『노자』의 원뜻은 ‘의도된’, ‘머릿속에만 있는’, ‘인위적인’, ‘표방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관념으로 자리 잡은 가치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노자는 22장에서 “曲則全이 어찌 헛된 말이겠느냐”고 강조한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표현상의 이런 역설적 수사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이 사실은 변증법적 논리 구조에서 동일한 태두리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사람들의 인식의 틀을 넘어서 보면 하나인 것이다. 사랑과 증오가 커다란 범주에서는 같은 감정인 것처럼 커다란 태두리 안에서 이 상대적인 개념의 것들은 하나다. 노자가 강조한 것은, 드러난 것이 다르더라도 결국은 본질은 같은 것이므로 非A가 되면 A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노자가 강조한 것이 결코 유가 등에서 이상으로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노자가 바라는 다스림의 이상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이익이 백배되고民利百倍’, ‘효심과 자애를 회복하며民復孝慈’, ‘크고 작은 도둑이 없어진盜賊無有’ 나라다. 간결하게 표현하면 ‘인위적이고’ ‘위선적이며’ ‘의도된’ ‘사심의’ 다스림을 멈추면 ‘잘 다스려지는 이상적인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 (2) “非A로 A를 하라.”

다음 문장은 『노자』 전체의 역설 중 가장 간명한 구절이다.

32) 괄점 초간본 첫째 문장은 “絕智弃辯，民利百倍。絕巧弃利，盜賊亡有。絕偽弃詐，民復孝慈。”(丁四新『郭店楚竹書『老子』校注』，武漢大學出版社，2010)이다. 괄점 초간본은 통행본인 왕필본이나 마왕퇴 백서본과는 달리 유가적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다. 유가와 도가가 통일성을 보인다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본 논문의 논지와 다르므로 그와 관련된 학설의 언급은 생략한다.

33) “書不盡言；言不盡意。”(『易·系辭上』) 341쪽

爲無爲。무위를 하십시오.  
事無事。없는 일을 하십시오.  
味無味。없는 맛을 맛보십시오.(63장)

책 전체에 다양한 비유와 각종 묘사로 표현된, 노자가 군왕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함축한다면 이 첫 번째 구절의 세 글자다.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그 본뜻은 “무위의 마음으로 무위의 다스림을 하십시오.”이다. 전체 81장중에서 이처럼 직접적으로 왕에게 권면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내용은 A와 非A를 병치시켜서 “非A로 A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역시 노자 역설의 전형이다.

處無爲之事。(성인은) 무위의 다스림을 하십니다.  
行不言之教。말없는 교화를 하십니다.(2장)

군왕이 군왕으로서 ‘일處’을 하려면 ‘유위爲’를 해야 하고, ‘실행行’을 하려면 ‘말씀言’을 해야 하는 것이 상리다. 그런데 모두 부정사를 넣어서 “非A로 a를 하라”는 역설이 되었다. 군왕을 향한 이런 노자의 주문은 마치 “귀를 막고 들으십시오.”하는 것만큼이나 모순적인 역설이다.

無狀之狀。형체 없는 모양입니다.  
無物之象。실체 없는 형상입니다.(14장)

다스림의 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노자는 그 표현하기 어려움을 이처럼 모순어법으로 말했다. 이것은 “非A인 A” 구조로 역시 전형적인 역설이다. ‘실체物’와 ‘형상象’은 같은 범주의 것이므로 ‘물 없는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의 경우도 유사한 구조다.

不言之教。말하지 않는 가르침,  
無爲之益。무위의 이익됨을  
天下希及之。천하에 실천할 사람이 없습니다.(43장)

이 경우는 같은 범주의 것이지만 전자인 ‘말씀言’, ‘유위爲’를 통해서만 후자 ‘교화教’, ‘이익益’이 구현되는 것이 상리이므로 “非A의 a”라는 역설 구조를 띤다.

不行而知。실천하지 않아도 알려지게 됩니다.  
不見而名。드러내지 않아도 명예롭게 됩니다.  
不爲而成。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루게 됩니다.(47장)

‘알려짐知’, ‘이름남名’, ‘성공成’ 등은 왕이 바라는 것이지만, 노자의 주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이를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문을 나서지 않고도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아는 것은 적어집



니다.”<sup>34)</sup>라는 앞서의 문장은 모든 의도적인 노력을 부정한다. “非A의 a”라는 이 역설 구조에는 감춰진 의미가 있다. ‘爲’·‘事’·‘味’·‘言’·‘行’·‘見’이란 모두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이를 하지 말고 다스리라는 것은 이들을 ‘유위’로 하지 말고 ‘無爲’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위’로 하는 실천이란 무엇인가 하는 궁극적 의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우선 무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노자의 말을 보자.

爲無爲, 則無不治. 무위로 다스리면 다스리지 못할게 없습니다.(3장)

道常無爲而無不爲. 도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37장)

無爲而無不爲.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안하는 게 없습니다.(48장)

이는 『노자』 사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無爲’에 대한 세 가지 역설적 표현이다. ‘無不爲’는 군왕이 추구하려는 최고의 다스림이다. 이는 ‘못하는 게 없는 완벽한 다스림’이므로 ‘無不爲’를 위에서 말한 노자의 다른 말투로 바꾸면 ‘최고의 다스림’인 즉 ‘大爲’이다. ‘大爲’란 ‘진정한 유위’인 셈이다. 진정한 유위인 ‘大爲’가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전체가 ‘無爲’라면 노자의 역설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大爲無爲. 최고의 다스림은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無爲’의 실천이란 군왕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다스리는 ‘의식적인 다스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노자의 관점으로 보면, 머리가 수족을 다스리려고 의식하는 순간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된다. 머리와 수족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이다. 노자는 궁극적으로 이런 역설을 통해서 군왕과 백성이 자연스러운 하나가 되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를 의식하지 않아도 편안한 것처럼) 백성이 왕을 의식하지 않고, 왕도 백성을 의식하지 않는 다스림의 이상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서 노자는 군왕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몰려섬), 낮추고(겸허함), 힘을 빼도록(유약함) 요구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수많은 역설로 강조하고자 했던 ‘無不爲’라는, 완벽한 ‘유위’를 위한 ‘無爲’다.

### 3. 결론

역설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다.’는 전체가 있어야 한다. 표현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치에 맞는 것이다. 언어는 그 자체로는 개념만을 상징하기 때문에 진실이거나 진리일 수 없다. 더구나 언어로 어떤 사실을 기술할 경우 논리는 극명한 한계를 지닌다. 진실의 양면인 현상과 본질을 동시에 보는 사유에서는 모순과 역설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전중서가 말한 대로 언어만으로 깊은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언어의 표면적 의미를 넘어서는 표현이나 반대되는 표현을 구사해야 한다.<sup>35)</sup> 노자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34) “不出戶, 知天下; 不窺牖, 見天道. 其出彌遠, 其知彌少.”(47장)

노자는 다른 어느 사상가보다도 많은 역설을 동원했다. 본 연구는 그가 역설을 통해서 군왕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규명한 것이다.

그 결과, 『노자』에 나오는 역설을 전체적으로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뉜다. 이들을 단계로 본 까닭은 이런 산발적인 역설이 결국은 노자가 추구하는 나라와 군왕의 이상적 기준에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단계는 사람들이 보는 눈앞의 현상이란 본질과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노자의 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골라서 ‘大巧若拙’이라고 했다. 노자가 서로 정반대가 되는 개념을 병치시키며, 상리를 벗어난 표현을 한 경우다. 이는 ‘진정한 것은 마치 그 반대처럼 보인다.’는 점을 왕에게 상기시키고자 한 것이다. 진정한 것이란 본질이다. 두 번째 단계는 ‘物壯則老’이다. 사물이 어느 한편의 극단에 이르면 다른 한쪽으로 반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왕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인위적이고 과도하게 추구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위한 역설이다. 이는 본질을 지향하는 사물의 섭리이다. 세 번째는 ‘無爲而無不爲’이다. ‘無爲’는 문자의 의미로 보면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하지 못함이 없는 爲’, 즉 ‘無不爲’를 추구했다. 이는 『노자』가 다스림의 이론에서 강조한 궁극의 원칙이다. 노자는 이런 역설을 통해서 ‘의도적이거나’, ‘의식적이거나’, ‘인위적이거나’, ‘작위적인’ 모든 노력을 부정하고 섭리와 이치에 맞게 다스림을 펴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그런 다스림은 적극적으로 ‘물러서고’, ‘낮게 처하고’, ‘마음을 비우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물과 같은 자연스러움, 여성의 유약함, 어린아이의 순수함, 계곡 같은 비움의 자세를 요구했다.<sup>36)</sup> 그래야만 군왕이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고 오래 가고 번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가 역설을 통해서 왕에게 전하는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상당히 적극적인 요구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보면 노자가 군왕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에는 정면의 단어와 반면의 단어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서로 상반되는 의미의 단어가 각각 지향하는 곳이 명확하다는 사실이다. 정면 의미의 단어는 군왕과 나라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노자는 군왕이 그 모습에 있어서 평범한, 껍데기만의 군왕이 아닌 진정한 왕(‘大方’·‘大器’·‘大音’·‘大象’)이 되기를 요구했다. 그리고 표면적이고 편파적인 생각으로는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므로, 노자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며 군왕에게 진정한 것을 보라고 요구했다. 진정한 것을 보는 통찰(‘大直’·‘大巧’·‘大辯’)을 통해 훌륭한 다스림의 원칙(‘明道’·‘進道’·‘夷道’)과 덕성 있는 왕의 모습(‘上德’·‘大白’·‘廣德’·‘建德’·‘質眞’)을 희망했다. 또한 극단에 치우쳐 균형을 잃지 않는(‘善戰者’·‘善勝敵者’·‘善用人者’) 군왕으로서 고르게 다스리면(‘疏而不失’) 완전한 치국(‘大成不弊’·‘大盈不窮’)이 된다고 했다. 그리하여 군왕이 진정 희망하는(‘立’·‘行’) 완전한 천하(‘全’·‘正’·‘盈’·‘新’·‘得’)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왕이 빛나고 인정받으며, 공로를 세우고 오래가는(‘明’·‘彰’·‘功’·‘長’)것은 물론, 널리 알려지고 명예로우며 성취(‘知’·‘名’·‘成’)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궁극적으로 노자는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온전히 이치에 맞게 다스리는(‘無不爲’·‘無

35) “古之哲人有鑒于詞之足以害意也,或乃以言破言,即用文字消除文字之執,每下一語,輒反其語以破之。”(『管錐編』) 13쪽

36) 노자에서는 이런 상징어들이 ‘牝’·‘雌’·‘谷’·‘谿’·‘江’·‘海’·‘水’·‘孩’·‘嬰兒’·‘赤子’ 등으로 묘사되었다.

不治’) 세상은 백성이 행복하고 따뜻하며 안전한(‘民利百倍’·‘民復孝慈’·‘盜賊無有’)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노자가 추구한 좋은 다스림의 본질이며, 바로 우리가 본 논문의 맨 앞에서 언급한 왕필의 ‘송본식말’에서의 ‘송본’이다.

반면 의미의 단어는 나라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길을 위해 군왕이 알아야 할 부분이고 가져야 할 태도에 집중되어 있다. 군왕에게는 의도적이고, 인위적이고, 의식적이고, 군더더기의 것, 껍데기의 것을 버리도록 요구했다. 군왕은 어떤 틀도 고집하지 않는 진정 커다란 모습(‘無隅’·‘晚成’·‘希聲’·‘無形’)을 보여야 한다는 것. 폭넓은 마음이라서 언제나 겸허한 자세(‘屈’·‘拙’·‘訥’ 또는 ‘曲’·‘枉’·‘洼’·‘敝’·‘少’)로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다스림의 모습은 부족한 듯(‘若昧’·‘若退’·‘若頽’)하고 그 덕성은 부실한 듯(‘不德’·‘若谷’·‘若辱’·‘若不足’·‘若偷’·‘若渝’)하다는 것. 항상 물러서고 낮게 처하며(‘不武’·‘不怒’·‘不與’·‘爲之下’), 겉으로 보기에는 허술한 것(‘天網恢恢’)처럼 보일 정도로 넉넉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뒤로 두고, 나서는 언행(‘自見’·‘自是’·‘自伐’·‘自矜’ 또는 ‘企’·‘跨’)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의도적인 정치를 버리고(‘不行’·‘不見’·‘不爲’), 더 나아가 인위적이거나 표방된 가치를 버려서(‘絕聖棄智’·‘絕仁棄義’·‘絕巧棄利’), 완전한 무위(無爲)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송본식말’의 ‘식말’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자 역설의 요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자의 역설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으며, 각각 하나의 점진적 단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둘째, 노자 역설의 내면적 의미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스림에 있어서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을 추구하라’는 의미(崇本息末)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역설을 통해서 노자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나라와 군왕의 모습은 지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 【참고문헌】

- 『老子道德經』 四部備要第52冊, 中華書局, 1989  
 丁四新, 『郭店楚竹書『老子』校注』, 武漢大學出版社, 2010  
 陸玉林編著, 『老子』, 中華書局, 2012  
 饒宗頤主編, 『孟子』, 中信出版社, 2013  
 郭慶藩撰, 王孝魚點校『莊子集釋』, 中華書局, 2013  
 黃壽祺·張善文撰, 『周易譯註』, 上海古籍出版社, 2012  
 陳曦譯註, 『孫子兵法』, 中華書局, 2014  
 錢鐘書, 『管錐編』中華書局, 1981  
 김원중, 『『노자』 텍스트에 있어서의 부정과 역설의 미학 : “道可道, 非常道”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역중간』 2013년  
 박영희, 『『老子』의 逆說에 대한 이야기식 해설의 함정:『韓非子』·『喻老』편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2010  
 박영희, 『『老子』의 逆說을 통한 素朴美 再考』『中國語文學誌』2009.10)  
 오진탁, 『『도덕경』에서 “정언약반”의 철학적 함의』, 『인문학연구』, 1996

- 이운형, 「『노자』의 도와 역설 = Laozi's Tao and Paradox」, 『동양철학』, 2003
- 이경무, 「『노자』철학에 있어서의 역설과 부정 = Paradox and Negation of LAO-TZU」, 『汎韓哲學』, 2010
- 劉雲漢, 「正言若反—『老子』의 悖異修辭」, 『河北學刊』, 2011.11
- 李培艷, 「論『老子』正言若反의 表達方法」, 『語言應用研究』, 2009.04
- 孫中原, 「正言若反—『老子』의 辨證論理」, 『河北社會科學』, 2008.07
- 魏永貴, 「『老子』書中“冤親詞”与“翻案語”論析」, 『語言文字學術研究』, 2008, 제1기
- 王 靜, 「『老子』悖論의 順應論解釋」, 『求索』, 2011.08
- 劉雲漢, 「正言若反—『老子』의 悖異修辭」, 『河北學刊』, 2011.11
- 李培艷, 「論『老子』正言若反의 表達方法」, 『語言應用研究』, 2009.04
- 張洪波 董譯聰 「老子正言若反與矛盾修辭格 (Oxymoron) 的同異」, 『人文叢刊第8輯』, 2013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한글	노자, 도덕경, 역설, 무위, 대교약줄, 모순, 치국이론
	영문	<i>Laozi, Daodejing, Paradox, Oxymoron, Doing Nothing, Governing a Country</i>

**A Study on Literary Paradox of *Laozi***

Ahn, Hei-Jin

本文의悖论不同于逻辑学中的悖论,而是文学上的悖论,是指有些语句,表面看来内容具有相反性或矛盾性,深层的含义却更加准确合理。事物有表象与本质,语言仅表达事物的概念,不一定是真理或真实,因此,用语言表述事实容易陷入明显的局限。人们洞察事物真实面目后,有时更需要用悖论来揭示本质:不仅使用语言表达表层意味,更需要透过语言表层,运用悖论来表现更加深层的含义。在诸子百家中,老子比其他任何人都更多地使用悖论来展示自己的思想。这篇论文针对老子如何通过悖论提出治国方略进行研究。

『老子』의悖论总共三个类型。第一,我们所认知的现象,经常与事物的本质不一样。老子最典型的句子就是“大巧若拙”。老子用意义完全相反的词语来描述现象和本质,指出人们所认知的只是与本质恰恰相反的表象,以此来告诉君王必须准确地洞察国家现实。第二,老子强调“物壮则老”这一规律。这是中国自古就有的思想,它表明,事物达到极端的一面就会自然产生回归的反作用力,这是所有事物运行的自然循环规则。老子以此来劝勉君王不要追求过度的、做作性的治国方式,并说明这种背道而驰的治国方式将带来灾难性后果。第三,“无为而无不为”,这是老子五千言的最高命题。“无为”在文字上看“不做”,而最终追求的却是“无事不能成”。君王治理国家,所有的政策与措施就应该顺其自然,才能马到成功。这就是老子所希望的最高治国方略。

为了这种治国方略的实现,他进而要求君王积极地退让、谦虚、慈爱及俭约。让君王积极追求雌性的柔软性、婴儿般的赤子心、水流般的自然性、溪谷江海般的包容性。这是使君王和国家平安无事、长存永保的原则。因此老子的这些治国方略是极其现实的,也是非常积极的。在他的悖理语句里,正反两面词语的指向是非常明确的。正面意义的词语是指君王和国家的走向:君王必须成为真正的君王(“大方”、“大器”、“大音”、“大象”),而不是空壳般的君王。为了成为真正的君王,必须善于洞察,把握事物本来的真实面目(“大直”、“大巧”、“大辩”)。以此英明政策来管理国家,君王本人的理想人品(“上德”、“大白”、“广德”、“建德”、“质真”)就会与老百姓浑然一体。君王推动国家政策时,必须透彻地把握现实,用更准确更先进的原则(“明道”、“进道”、“夷道”)施行各种措施。必须以谦让朴素的态度包容天下,细心周到(“疏而不失”)地关怀老百姓。这样的国家就会永不衰亡(“大成不弊”、“大盈不穷”)。君王所希望的(“立”、“行”)国家不断地繁荣成长(“全”、“正”、“盈”、“新”、“得”),君王自己获得真正的成功(“明”、“彰”、“功”、“长”、“知”、“名”、“成”)。这没有任何勉强做作,全是自然而然发展繁荣(“无不为”、“无不治”)。这样的国家,是老百姓人人都幸福、温暖、安全(“民利百倍”、“民复孝慈”、“盗贼无有”)的国家。这就是王弼所谓“崇本息末”的“崇本”方略。

反面词语则集中表达了君王本身要持有的心态和力行的言行。老子要求君王不要做作(“企”、“跨”),不要伪善(“自见”、“自是”、“自伐”、“自矜”),不要过度的“有为”。君王不要顽固地执着,一意孤行(“无隅”、“晚成”、“希声”、“无形”)。君王要谦虚(“不武”、“不怒”、“不与”、“为之下”),少做(“不行”、“不见”、“不为”),淳朴(“屈”、“拙”、“讷”、“曲”、“枉”、“洼”、“敝”、“少”),甚至于愚钝(“不德”、“若谷”、“若辱”、“若不足”、“若偷”、“若渝”、“若昧”、“若退”、“若颡”)。这样他的政策松散而宽裕(“天网恢恢”),也不必处处标榜人伦价值(“绝圣弃智”、“绝仁弃义”、“绝巧弃利”)。如此进

行“无为之治”，就是王弼所谓“崇本息末”的“息末”方策。

总而言之，老子的悖论具有以下三个要点。一是其悖论有“正言若反”、“物壮则老”、“为无为”三种类型。二是老子所说的悖论的确拥有“崇本息末”的含义。三是老子所追求的理想的治国方略具有非常积极而值得肯定的意义与价值。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안희진 / 安熙珍 / Ahn, Hei-Jin
	소 속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과
	Em@il	china@dankook.ac.kr
	주 소	(생략)
	전화번호	(생략)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5년 5월 17일
	심 사 일	2015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5년 6월 22일